

한·미 FTA 발효 이후, 美 자동차부품 바이어 對韓 수입 계획



CONTENTS

목 차

요 약 / 1

3	1.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및 전망
8	2.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바이어 한국산 구매 확대 계획
12	3.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시 유의사항

요 약

I.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부품 시장 규모

- 2010년 기준,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규모는 약 2,035억불을 기록
- 경기회복세 둔화에도 불구,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요도 동반 확대 예상

□ 수입 동향

- 글로벌 소싱 확대로 자동차 부품 수입은 증가세
 - 전체 자동차부품시장 내 수입산 비중도 동반상승 : 20.8%('01) → 32.2%('10)
- 무관세와 지리적 이점을 지닌 멕시코, 저가를 기반으로 빠르게 품질을 추격 중인 중국산 수입이 두드러지게 확대
- 가격대비 높은 품질 만족도와 현대·기아차 현지생산 증가로 對韓 수입도 증가세

□ 최근 구매 트렌드

- 원가 절감을 위해 글로벌소싱은 강화되고 있으나, 품질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업체 수는 오히려 축소
- 신규 연비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
 - 연비기준 : 27.3mpg('09) → 35.5mpg('16)
- 후방카메라, 에어백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부품 수요 확대
- 일본 대지진 여파로, 신규 공급업체 선정시 공급안정성에 대한 검증 강화
- 원가 절감을 위한 납품 단가 인하 압력 가중
-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공동개발 관계로 변화

II.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바이어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BIG 3, 델파이(북미 10大 Tier 1 업체), Aisin World Corp. of America (북미 도요타 생산공장 납품, 도요타가 22.5% 지분 보유) 등 5개사 내 글로벌 소싱 담당자
- 조사 내용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구매 계획에 대해 심층 인터뷰

□ 주요 조사 내용

- BIG 3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부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 계획
 - 배터리, 인버터 기술제품, 차체무게 절감용 경량화 소재 제품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구매 확대 추진
 - Delphi와 Aisin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구매 확대계획을 수립할 예정
 - Aisin World Corp. of America는 도요타 본사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커, 한국산 구매를 확대하려던 차에 한미 FTA까지 발효되는 만큼,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 ⇒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완성차 브랜드에도 한국산 부품 납품이 확대될 전망

바이어명	한국산 부품구매 확대 계획	구매 희망 부품
GM	· 아태지역 구매율을 現 16% → '16년 30%로 확대 계획 · 한국산 구매 규모도 現 7억불 → 10억불 이상으로 확대 · GM 본사 글로벌 구매팀 직원 3%를 국내 GM Korea에 파견하는 안 검토 중	친환경자동차 장착용 배터리, 인버터 관련 제품
Ford	· 한국산의 북미 수입이 향후 10년간 20% 이상 증가 예상	차체무게 절감용 경량화 소재 제품
Chrysler	· 한미 FTA 발효, 친환경자동차 상용화로 국내납품 업체 수를 現 70개사 → '13년 100개사로 확대 계획	PCBs, Wire harness, 서스펜션 등
Delphi	·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구매확대계획 수립 예정	플라스틱 금형제품, 다이캐스팅 제품 등
Aisin America	· 도요타 본사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다대 · 한미 FTA 협정 내용 검토 후, 구매확대 계획 수립 예정	플라스틱 몰딩제품, 다이캐스팅 제품 등

I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 (현황) 2010년 기준,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약 2,035억불로, OE (Original Equipment) 70%, A/S(Aftermarket) 30%로 구성
- (OE 시장) 2010년 미국 OE 부품 시장 규모는 1,415억불
- (A/S 시장) 2010년 미국 A/S 부품 시장규모는 620억불

< 연도별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

(단위 : 십억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 계	219.3	224.7	248.5	252.2	255.4	259.8	250.5	221.5	165.6	203.5
OE	164.8	168.5	191.1	193.1	194.4	196.0	185.8	158.2	103.7	141.5
A/S	54.5	56.1	57.5	59.1	61.0	63.8	64.7	63.3	62.0	62.0

자료원 : 2011년 미 상무부 자동차부품 백서

- (전망) 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 수요도 동반 확대 예상
- 2010년 자동차 판매는 1,159만대를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1,250만대~1,400만대 가량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

< 기관별 2011년 미국 자동차 판매 예상>

(단위 : 백만대)

기관명	대수(백만대)
Morgan Stanley	14.0
CAR(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13.0
Edmunds.com	12.9
IHS Automotive	12.8
J.D Power	12.8
TrueCar.com	12.7
KeyBanc Capital	12.6
PriceWaterhouseCoopers Automotive	12.5

□ 수입 동향

- (개황) 글로벌 소싱 확대로 자동차 부품 수입은 증가세
 - 금융위기 여파로 '08,'09년 급감, '10년 들어 예년수준으로 복귀 조짐
 - 전체 자동차부품시장 내 수입산 비중도 동반상승 : 20.8%('01) → 32.2%('10)

< 연도별 수입산 자동차부품 추이 >

(단위 : 십억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219.3	224.7	248.5	252.2	255.4	259.8	250.5	221.5	165.6	203.5
미국산 (비중)	173.6 (79.2%)	172.6 (76.8%)	191.9 (77.2%)	189.1 (75.0%)	186.3 (72.9%)	189.3 (72.9%)	177.1 (70.7%)	155.9 (70.4%)	118.8 (71.7%)	137.8 (67.7%)
수입산 (비중)	45.7 (20.8%)	52.1 (23.2%)	56.7 (22.8%)	63.1 (25.0%)	69.1 (27.1%)	70.5 (27.1%)	73.4 (29.3%)	65.6 (29.6%)	46.8 (28.3%)	65.6 (32.2%)

자료원 : 2011년 미 상무부 자동차부품 백서

- (BIG3 글로벌 소싱)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 소싱 확대
 - 2005년 이후 부터 BIG3 외국산 부품 조달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점에 미뤄볼 때, 아웃소싱이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
 - GM : 매년 20억불 원가 절감을 목표로 전 세계에 글로벌 구매팀(Global Creativity Team) 가동 ⇒ 총 900억불 중, 290억불(32%)를 해외서 조달('07)
 - * GM에 납품하는 국내부품업체 수도 '02년 16개에서 현재 230여개로 증가

<BIG3의 연도별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

(단위 : %)

	1995	2000	2005
GM	9	13	19
Ford	14	13	18
Chrysler	11	20	24

자료원 : CRS US Automotive Industry(2005)

- (국별 수입) 특히, 무관세와 지리적 이점을 지닌 멕시코, 저가를 기반으로 빠르게 품질을 추격 중인 중국산 수입이 두드러지게 확대
 - 1994년 NAFTA 체결, 2000년 이후부터 완성차 제조업체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본격화 되면서, 멕시코산의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동력 제공
 - 저가를 앞세워, 중국산은 미국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면서, 201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의 제 4위 자동차부품 수입국으로 등극
- (對韓 수입) 가격대비 높은 품질 만족도와 현대·기아 자동차 미국 현지 생산 증가로 對韓 수입도 꾸준한 증가세 시현

< 국별 자동차부품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 계	62,726	69,089	74,469	83,444	92,154	95,179	100,231	90,618	63,008	90,899
멕시코	18,180	20,069	21,039	23,104	24,910	26,368	28,416	25,281	18,294	28,113
캐나다	15,787	17,217	18,569	20,164	21,581	20,424	20,539	16,524	10,458	14,469
일본	13,150	13,498	13,745	15,494	16,448	15,377	14,757	13,486	8,774	12,103
중국	1,758	2,242	2,788	3,884	5,408	6,928	8,628	9,042	7,433	10,037
독일	3,746	4,336	5,426	6,147	6,709	7,132	8,352	7,426	4,793	6,278
한국	1,122	1,383	1,546	1,866	2,713	3,740	3,965	3,891	2,621	4,929
타이완	1,085	1,294	1,366	1,604	1,731	1,801	2,003	1,966	1,647	2,042
태국	411	546	529	582	660	892	1,140	1,192	914	1,684
브라질	955	1,275	1,474	1,711	2,022	2,224	1,767	1,735	953	1,279
오스트리아	201	222	281	240	373	358	542	404	469	806
기타	6,331	7,007	7,706	8,648	9,599	9,935	10,122	9,671	6,652	9,159

자료원 : 미국 통계청

주 : 상기 통계에서 준용한 자동차부품 범위와 '연도별 수입산 자동차부품 추이' 에서 준용한 자동차 부품 범위가 상이

□ 최근 구매 트렌드

- 글로벌소싱 강화 - 납품업체 수는 오히려 축소
 -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 업체수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
 - Ford는 납품업체 수를 '04년 2,450개 → '10년 850개 → '11년 750개로 감축 추진
- 신규 연비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
 - 신규 연비기준 :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2009년 현재 27.3mpg인 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 당 15.0km대)로 개선
 - 연비기준 준수를 위해, GM, 포드 등 완성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 커질 전망
 - ⇒ 저연비 고효율 자동차부품 선행 개발로 미국 OEM의 수요에 조기 대응 필요
 - 유망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는 직분사 엔진, 듀얼클러치, 공회전방지 장치, 공랭식 개폐시스템, 엔진냉각장치의 효율을 높인 워터펌프, 고연비 타이어,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고장력 강판 등이 꼽힘.
- 운전자 안전을 위한 부품 수요 확대
 -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2014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 규제가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
 - 美 도로교통안전청(NHTSA), 27억 달러의 부품시장 창출 예상
 - 美 도로교통안전청이 측면 에어백 장착 의무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에어백 수요 증가 예상
 -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2018년에 본격 시행 계획으로, 에어백 시장은 약 5억 달러 추가 확대 예상

○ 안정적인 공급선 선호 현상 강화

- 일본 대지진 여파로 주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납품 실적, 주요 공장에 납품 가능한 글로벌 공급 능력 보유 여부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등장
- 신규공급업체 선정시 '비상시 대응 능력 검증' 강화, 품질에 문제없고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급처 선호

<신규공급업체 선정시 주요 평가 요소>

평가 요소	주요 내용
생산능력 재무건전성	기술력 : 엔지니어링 연구 및 설계업무 병행
	가격 경쟁력 : 연간 일정비율의 비용 절감 능력
	생산 능력 : 수요증가 시 충족 가능성 검토
	타 OEM 공급 경험 검증
	재정 능력(재무 안정성 확보)
비상 대응능력	적기 공급 능력 : JIT체계 구축 방안 등
	품질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적기(24시간) 제시
	지속적인 개선 가능 여부,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원가 절감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 가중

- 저가 중국산 수입확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
- 전장 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은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공동개발 관계로 변화

- 완성차가 사양을 제시하고 공급업체가 개발을 담당하는 승인도면 방식 증가
 - * 승인도 방식 : 70%, 위탁도면(대여도면) 방식 30%
- 공급업체 선정방식도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이나 계열사 위주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 선정 추세
 - * 경쟁적 개발방식 64.3%, 계열사위주 발주 23.8%, 가격경쟁 위주 입찰 11.9%

II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바이어 한국산 구매 확대 계획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BIG 3, 델파이(북미 10大 Tier 1), Aisin World Corp. of America (북미 도요타 생산공장 납품, 도요타가 22.25% 지분 보유) 등 5개사 내 글로벌 소싱 담당자
- 조사 방법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구매 계획에 대해 심층 인터뷰

□ 주요 조사 내용

- BIG 3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부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
 - 배터리, 인버터 기술제품, 차체무게 절감용 경량화 소재 제품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구매 확대 추진
 - Delphi와 Aisin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구매 확대계획을 수립할 예정
 - Aisin World Corp. of America는 도요타 본사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커, 한국산 구매를 확대하려던 차에 한미 FTA까지 발효되는 만큼,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 ⇒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완성차 브랜드에도 한국산 부품 납품이 확대될 전망

바이어명	한국산 부품구매 확대 계획	구매 희망 부품
GM	· 납품업체 선정시 입찰후보 구성에도 한국 등 신흥국 기업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경영진에서 승인 · 아태지역 구매율을 現 16% → '16년 30%로 확대 계획 · 한국산 구매 규모도 現 7억불 → 10억불 이상으로 확대 · GM 본사 글로벌 구매팀 직원 3%를 국내 GM Korea에 파견하는 안 검토 중	친환경 자동차 장착용 배터리, 인버터 관련 제품
Ford	· 한국산의 북미 수입이 향후 10년간 20% 이상 증가 예상	차체무게 절감용 경량화 소재 제품
Chrysler	· 한미 FTA 발효, 친환경자동차 상용화로 국내납품 업체 수를 現 70개사 → '13년 100개사로 확대 계획	PCBs, Wire harness, 서스펜션 등
Delphi	·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구매확대계획 수립 예정	플라스틱 금형제품, 다이캐스팅 제품 등
Aisin America	· 도요타 본사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심이 다대 · 한미 FTA 협정 내용 검토 후, 구매확대 계획 수립 예정	플라스틱 몰딩제품, 다이캐스팅 제품 등

□ 바이어별 세부 인터뷰 내용

기업명	General Motors	특기사항	· 미국 최대 완성차 생산업체 · BIG3 중 글로벌 소싱에 가장 적극적
매출규모('10)	1,356억불	품목	완성차용 하이브리드 배터리 팩, 리튬전지
답변자	N/A	직책	시니어 구매 엔지니어
연간 부품 구매액	연간 900억불 추정	한국산 구매액	7억불 내외
현재 한국산 구매부품 List	OEM조립용 부품 (파워트레인, 사시, 내외장재, 전장부품)	향후 한국산 구매희망 부품 List	전기차,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산 배터리 (화학원자재), 인버터 관련 기술 제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	· 'Supplier Footprint Optimization'이라는 정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동유럽,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부품 구매를 늘리려는 GM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 - 입찰후보 구성시에도 후보업체 중 50% 이상을 이들 신흥국 업체들로 구성해야 경영진에서 승인 · 매년 부품 구매 원가를 20억불 절감하기 위해, 아태지역(한국포함) 으로부터 구매 비율을 현재 18%에서 2016년 30%까지 끌어 올릴 계획 ⇒ 한국부품구매규모를 현재 7억불에서 향후 10억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GM Korea를 출범시킴으로써 국내 부품기업들이 GM의 구매 프로세스에 쉽게 적응 - 특히, 국내 부품기업은 GM의 원가절감요구에 협조적이라는 평가 · 한미 FTA 발효 시, GM Korea를 통해 한국 부품 확대 구매정책 시행 예고 ⇒ GM 본사의 글로벌 구매팀 직원 3%를 국내 GM Korea에 파견하는 안을 검토 중 · 구매확대 예상품목은 배터리 팩, 인버터 기술제품, 고무 원자재, 금형 제품 등임.		
한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중국, 일본, 대만산 대비 가격/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 노력 필요		

기업명	Ford Motor Company	특기사항	미국 시장 점유율 2위
매출규모('10)	1,290 억불	품목	Transmission 관련부품
답변자	N/A	직책	신규제품 개발 시니어 엔지니어
연간 부품 구매액	연간 800억불 추정	한국산 구매액	3억불 내외
현재 한국산 구매부품 List	OEM조립용 부품 (특히 한국산 Steel, 튜브 제품 및 전기 전장 파트 위주)	향후 한국산 구매희망 부품 List	경량화 제품 (차체무게 절감용 경량화 소재 제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매우 폐쇄적이었던 구매정책을 벗어나 포드차 국내 수출확대와 맞물려 한국산 부품의 북미 수입역시 향후 10년간 20% 이상 증가 예상 · 특히, 파워트레인 관련제품의 경량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의 경량화 제품 및 저탄소 소재의 부품 개발기술에 많은 관심		
한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한국산 제품들의 미국진출을 위한 기본 초석인 각종 인증 및 특허 출원을 통해 기본적인 수출 여건확보 절실 · 장거리 배송으로 인한 Shipping가격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 북미 현지화 노력에 주력할 필요		

기업명	Chrysler Group LLC	특기사항	BIG 3 중의 하나
매출규모('10)	419억불	품목	Metalic component
답변자	N/A	직책	Director-Diversity GlobalSourcing & Supplier Relations
연간 부품 구매액	연 350~400억불 추정	한국산 구매액	5억불 내외
현재 한국산 구매부품 List	OEM 조립용 부품 (최근 가장 많이 구매 하는 부품은 메탈릭 컴포넌트)	향후 한국산 구매희망 부품 List	PCBs, Wire harness, Door Hinge, 서스펜션 관련 제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	· 현재 국내 Chrysler Korea를 통해 1차적인 국내 업체 스크리닝 및 필터링 작업을 통해 추천을 받은 70여개 국내 업체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 · 2013년 내 전기/하이브리드/디젤 차량 개발 증가에 따라 향후 국내 거래 업체수를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메탈 신기술 개발 중심 업체를 중심으로 업체 추가 계획		
한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해외 고객(특히 OEM) 니즈와 요구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해진 구매 절차 준용 필요 · 업체별 해외 Sales 담당 부서의 전문화된 교육 필요		

기업명	Delphi Automotive LLP	특기사항	북미 10大 Tier-1 기업 중 하나
매출규모('10)	138억불	품목	Castings & Forgings, Rubber Die Cut Foam
답변자	N/A	직책	Asia-Pacific, Purchasing Director
연간 부품 구매액	연 60억불 추정	한국산 구매액	연 2억불 내외
현재 한국산 구매부품 List	에어백, 안전벨트, 서스펜션, 캐스팅, 포징, 고무, 다이컷 제품 등	향후 한국산 구매희망 부품 List	다이캐스팅 제품 및 플라스틱 금형 제품, 툴링, 단조 제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	· FTA에 따른 급속한 구매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진 않으나, 한국산에 대한 품질과 가격만족도가 높은 만큼, 현 수준 만큼은 구매량이 유지될 전망 · 추후 중국의 시장변화를 지켜보며 대한 구매확대 계획 수립 예정		
한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제품 Quality 대비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이 다소 부족 · 현지 생산라인 증설 및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가 동반 되어야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부품의 대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기업명	Aisin World Corp of America	특기사항	· 도요타 1차 벤더 · 도요타가 22.25% 지분 보유
매출규모('10)	300억불	품목	엔진 구성품, 트랜스미션 관련 부품, 바디 부품, Chassis 구동 부품
답변자	Douglas Cha	직책	Asia-Pacific regional Director, Advisor
연간 부품 구매액	연 100억불 추정	한국산 구매액	연 1억불 내외
현재 한국산 구매부품 List	Sunroof 구성품, 바디 샤시 제품, 전기 모터	향후 한국산 구매희망 부품 List	Brake 관련 제품, 다이캐스팅 제품, 플라스틱 몰딩제품, 각종 툴링 장비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	· 토요타가 최근 한국산 부품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1차 벤더인 Aisin 또한 한국산 구매확대 계획을 수립 중 · 한미 FTA 협정 내용을 검토 중이며, 발효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에 구체적인 구매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		
참고 사항	· 북미 법인은 토요타 북미 공장뿐만 아니라 Big3 OEM에게 Aisin 제품을 납품 중		

III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시 유의사항

□ 품질 인증 획득

- 자동차 부품에 있어 대표적인 품질 표준 체계는 ISO/TS16949이며, 인증서 획득은 등록대행사(Accredited Registerer)를 통해서 가능
 - ISO/TS16949는 빅3의 품질 표준인 QS-9000과 유럽 및 일본 업체들의 품질 표준을 결합한 것으로 2006년부터 업계 필수 인증으로 자리매김
- 일부 품목의 경우, 차량 배기가스 보증에 관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보증인증(Certified to EPA Standards)을 통해 경쟁력을 보완 가능
 - 업계에서 자발적인 제도로 운영

□ 바이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 기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OEM과 주요부품업체의 경우,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교신이 신규 공급기회를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 바이어는 물론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자사의 품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의 존재와 생산 능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
 - 바이어와 처음 접촉 후 구매에 이르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F/U할 필요
- 세련된 영어 구사를 통해 바이어와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정확한 업계 용어와 비즈니스 매너를 습득한 마케팅 전문 인력 배치 필요

□ 한국사무소 직원을 적극 활용

- BIG3 등의 한국사무소 직원은 예비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및 기술 조언을 해주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동 직원의 조언을 참고하여 대책 마련

□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전트 활용도 검토

- 에이전트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인맥을 바탕으로 기동성 있게 대응 가능
 - 착수금에 더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 철저한 과거 납품 경력 관리

- 품질 관리를 위해 공급 능력과 기술 능력을 갖춘 소수 기업에 납품 기회가 물리는 만큼, 국내외 완성차 및 주요 부품업체에 대한 공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일본 대지진 이후, 공급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과거 납품 경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Tier1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도 고려

- BIG 3 등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
- Tier2로 시작해서 (완성차 업체로부터) 장기간 공급능력을 인정받아 Tier1으로 성장 가능
 - 해외 납품 경력이 적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에 적합

□ 국내외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를 통해 Exposure 확대

- 신제품의 트렌드, 경쟁동향 입수 뿐 만 아니라, 공략대상 바이어와의 상담 기회 확보도 가능
- 신규 부품 수출 사례 중 상당수가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만난 바이어 납품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내 사무소(혹은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화 노력 병행

- 운송비용 및 시간 절감, 클레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지 사무소·공장 설립 검토 필요



작성자

◆ 디트로이트 김태균 과장
◆ 구미팀 이정선 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11-034

한미 FTA 발효이후,
美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對韓수입 확대 계획

발 행 인 | 홍 석 우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1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